

“동참은 자율적으로 정진은 뜨겁게”

미타선원, 내년 2월 28일까지 스님 및 신도 30여 명 화두타파 ‘일심’

12월 1일 전국 사찰에서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간 날, 부산 도심의 한 사찰에서 4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함께 결계했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스님 및 신도 30여 명이 시민선방인 안심당에서 동안거에 들어갔다.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동안거 수행정진)’이란 제목에는 그간 상설 운영 중인 시민선방을 이용하는 선객들은 물론, 미타선원의 신도들과 지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길 바라는 주지스님의 바람이 담겨있다.



부산 미타선원 재가신도들이 12월 1일 동안거 결계를 시작으로 용맹정진하고 있다.

매일 오전 5시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9~12시 입선 및 사시불공, 오후 1~6시 자율정진 및 공덕 쌓기, 7~8시 저녁예불 및 기도, 8~9시 참선 및 기도, 10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는 수행의 연속이다. 만약 3개월 동안 거간 동안 집안일이나 직장일 등을 병행해야 할 경우에는 스스로 시간을 정해 참선 수행하고 귀가할 수도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마음의

로라도 정진의 기운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재가불자를 위한 동안거인 만큼 시간과 장소, 일상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규율도 있다. 첫째, 시간 엄수. 입선에 들어가기 10분 전 목탁 소리가 들리면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선방에 들어선다. 둘째, 선방

에 앉을 때는 기본 예법인 법복을 갖춰 입고, 드나들 때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동안거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율력을 수행의 일부분으로 알아 최선을 다해 임한다.

김춘덕 씨(74, 범명 법성혜)는 “동안거 역시 일종의 공동체생활이기에 늘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게서 좋은 점을 받아 숙연하고 또 한결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사실 재가불자들을 위한 동안거 수행프로그램은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1박 2일부터 일주일, 보통 정도의 용맹정진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타선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겨울(동안거 수행정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도심에 위치해 집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지리적 여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상설 운영하는 시민선방 문화가 정착돼 있어 일체 묵언수행을 하는 등 도반을 위한 배려가 일관되게 하루 중 언제라도 좌복 위에 앉으면 삼매에 들 수 있다. 또, 미타선원의 행복선수행학교(교장 월암,

벽송사 선원장)에서 간화선에 관한 이론을 배우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어, 이론과 실참을 겸비한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림 스님은 “이번 겨울 안거 수행정진은 미타선원 수행의 심장이라 부를 만큼 모든 신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르신들이 정진하며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모습은 후배불자들과 도반들에게 희망을 준다”며 “현재 청소년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참선수행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가운데 미타선원도 다양한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참선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용맹 정진으로 뜨거운 겨울을 보낼 미타선원 겨울안거에 모인 40명의 선객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모였지만 목표는 단 하나, 내 안에 감춰진 자성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결계 중 언제라도 동참할 수 있다. (051)253-8687-8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호법사 묘행공덕회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생각해요”

대개 내가 다니는 절 안에서 스님과 도반들을 위해 행하는 봉사 활동은 절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 반면 서로 다른 인물로 절에 모인 신도들과 팀을 이뤄 절 바깥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은 알아주는 이도 없거나 자칫 불협화음을 이루다가 팔팔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찰 수행학교 졸업 동기들이 마음을 모아 묵묵히 노인 무료급식과 의료봉사를 이어와 지역사회로부터 봉사단체상과 우수봉사자상 6명까지 휩쓸은 봉사단체가 있다. 바로 부산 호법사주지 심산 묘행공덕회가 그들이다.



(왼쪽부터) 송양순 2대회장, 송금년 3대 현 회장.

묘행공덕회(회장 송금년)는 2005년 초 호법사 수행학교 2기 졸업 동기 약 30여 명으로 구성돼 졸업 후에도 사찰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신도 스스로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수행학교에서 배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매월 두 차례 사찰 인근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및 한방 의료봉사를 하고, 지장재일이나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공양간 살림을 도맡고 있다. 무료급식의 경우 약 40여 명의 어르신과 경로당 직원 15명, 봉사에 참여한 회원 15명 등 70인 분의 공양을 준비해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소중이 다룬 듯 즐겁다고 한다.

송금년 회장(61, 범명 대비행)은 “나는 사부모님을 모셔보지 못해서 이곳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내 부모님과 같이 공양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며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 인지 시험해 볼 겸 나도 한번 해보자”는 새로운 사원이 생겼다.

어르신들의 밥상을 5년 넘게 마련하다 보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까지 알 정도다. 식단은 가장 인기 있는 미역국, 소고기국, 조계사리국 등 3가지 국과 계절나물 반찬, 생선구이, 김치, 떡, 과일 등으로 마련된다.

오랜 봉사활동은 묘행공덕회 회원들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등 삶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끔 뱃피 날에만 절에 들려 밥을 먹고 내가 먹은 그릇만 겨우 씻겨줄 정도였지만 이제는 묘행공덕회 활동 이외에도 맡겨지는 소임은 뭐든지 열심히 한다. 법당에 들어갈 틈도 없이 공양간, 중무소, 절 마당 등 곳곳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곧 기쁨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송양순(61, 범명 대각심) 전임 회장은 금정구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식에서 “아직 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뜻밖에 시상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더 맛있는 공양을, 더 자주 대접해드리게 내년 목표”라고 밝혔다.

묘행공덕회를 창립하고 이끌어 준 주지 심산 스님은 “우리 절이 아닌 절 바깥 지역과 사회의 이웃을 위한 봉사이기에 더욱 뜻 깊다”며 “내년에는 현재 월 2회 이던 봉사활동 횟수를 늘리고, 한 방진료와 함께 오랫동안 더욱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자”고 격려했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초심자·청소년 장좌불와 정진 여래선원, 28일 입제 5박6일 동안 수행

전문 수행자인 구암 수좌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철야용맹정진에 불교수행 입문자와 청소년들이 도전에 나선다.

부산 화명동 참선도량 여래선원(선원장 황규업)에서 초심자와 청소년을 위한 새해맞이 5박 6일 장좌불와 참선 용맹정진을 마련한다.

12월 29일 오후 8시 입제해 1월 3일 오후 6시 회향하는 일정으로, 주팔과 공휴일 기간을 이용해 직장인 불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 역시 용맹정진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며 각오를 다질 수 있다.

‘장좌불와’란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를 참구하는 수행을 말한다.

엿새 오랜 세월 수행해온 고수 선객들이 할 수 있는 고난이도 정진일 것 같지만, 사실 초심자들이 반드시 선정

의 힘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할 수행의 첫 걸음이라고 한다.

황규업 선원장은 “혼자서도 수행 잘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아직 제대로 된 참선 수행정진을 느껴보지 못한 초심자와 청소년에게 바른 수행법과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진기간에는 하루 중 18시간 좌선하고 나머지 6시간을 공양하며 단 1분 1초도 잠들지 않는다. 범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혼자서 아닌 여러 도반이 있기에 누구나 무리 없이 원만 회향할 수 있다. 특히, 책상 앞에 앉으면 1시간도 채 안돼 탄 것하는 집중력 부족한 청소년과 수행생에게는 인내심을 기르는 집중수련을 특별 지도한다.

준비물은 법복이나 간편한 복장과 세면도구, 발우이고, 참가비는 8만원이다. (051)362-0339

박지원 기자

“북한 어린이 위해 빵공장 건립할 것”

지원 스님, 참여불교운동본부 신임이사장 선출



지원 스님.

민간 대북지원단체 참여불교운동본부(이하 본부) 신임 이사장으로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이 선출돼, 오는 12월 20일 오후 4시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간 임기에 돌입한다.

신임 이사장 지원 스님은 “남북 관계가 냉랭한 때에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냉각되어 있을 때 민간·종교단체에서 물꼬를 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본부에서 실시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환경자전거 보내기’ 및 남북 학생 간 문화교류를 위해 사생대회 및 백일장 등의 계보를 잇는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빵공장’ 건립에 관한 청사진을 펼쳤다.

스님은 “특히 북한의 영·유아들은 도움이 절실한데 1차적인 문제는 역시 먹는 것이다. 이에 빵공장을 건립하고,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에 이르는 지속적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금마련과 본부 홍보를 위해 이·취임식부터 6일간 국제

신문사 4층 제2전실에서 호산 스님 불화 및 선사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더불어 남북관계에 있어 정치·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불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불교의 교세도 강하고, 사찰도 많다. 많은 동포들의 정서에는 불교와 그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서 부처님오신날 남북 공동법회 등과 같이 불교계의 교류는 활발한 만큼, 남북 어린이들 간 자매결연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가슴으로 같은 민족임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어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박지원 기자

※ 카달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특대호-국전 (91.9x61.5cm) | 한지-국3절 (30.5x63cm) | 대-국6절 (30x31cm) | 소-4x6 12절 (25.5x26.5cm) | 탁상용 (21.5x15cm) | 미니 차량용 (8.8x9.5cm) | 메모 수첩용 (9.5x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